

‘치즈아이랜드’ 조성 본격화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 조성 추진… 중간 보고회 가져

임실군이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2일 치즈아이랜드 중간 보고회를 갖고 치즈 및 낙농을 주제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은 제7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도비 2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된다.

시설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故 지정환 신부와 임실치즈의 발자취를 간직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옆에 위치한다.

주변 자연경관 훼손이 없도록 언덕을 살린 지중화 형태로, 지하 1층(연면적 약 1,300㎡)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사업과 앞으로 추진계획인 관광호텔 조성사업, 민관상생투자협약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임실군은 지난 12일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치즈를 테마로한 전국 유일의 체험·놀이·휴식이 결합된 복합 관광 플랫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치즈테마파크의 기존 인프라에 더해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그간 어린이 전문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더불어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한자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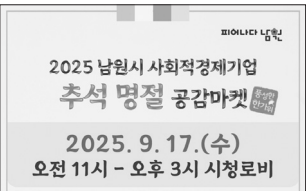
남원시, 17일 시청 로비서 ‘추석 명절 공감마켓’ 개최

남원시는 오는 17일 시청 로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와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 ‘추석 명절 공감마켓’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감마켓은 남원시 관내 사회

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14개 업체가 참여해, 한과와 강정, 조청, 누룽지, 장류, 전통주, 기름, 치즈떡, 도토리묵, 김부각, 추어탕, 수제 파실차 등 1~5만원대, 50여종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모든 제품은 남원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해 생산되었으며, 건강하고



정성이 담긴 먹거리로 명절 선물은 물론 일상 소비재로도 손색이 없어 눈길을 끈다.

공감마켓은 남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뷰’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9일,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을 통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뷰(Nong-View)’ 구축 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 전 지역의 드론 영상데이터 구축, AI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료 생산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등 총 3건의 서비스 개발을 한국국토정보공



사(LX)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남원시와 한국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드론 영상 데이터 구축, AI 기반 영상 분석 체계 등 ‘농뷰’ 핵심 기능별 중간 성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드론 영상과 AI 기술을 통해 조사료 미재배 면적 167ha(약 11%)를 정확하게 식별, 이를 통해 약 1억7,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조사료 재배지에 대한 현장 점검 비율도 71% 줄이는 등 행정 효율을 크게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쉐랑드 대강당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순창 발효문화 국제관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창 발효문화, 세계 무대 오르다

국제관광포럼 성황리 개최

순창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쉐랑드 대강당 및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 순창 발효문화 국제관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공동 주최, 관광콘텐츠학회와 한국호텔리조트학회 주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순창군이 후원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러시아, 몽골, 중국 등 국내외 발효관광 전문가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국제 교류의 장이 됐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김현환 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발효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기념 공연과 함께 본격적인

포럼의 막이 올랐다.

류인평 추진위원장(전주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발효문화는 순창의 뿌리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자산”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순창이 발효문화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발효문화와 관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한국·베트남·러시아·몽골·중국 학자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발효테마파크 탐방, 강천산 걷기, 장류 만들기 체험 등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순창의 발효문화를 체험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국제포럼은 순창 발효문화가 세계인과 만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발효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취업 박람회-순창군 일 구하는 날’ 19일 개최

순창군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취업 박람회-순창군 일 구하는 날’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조, 건설, 복지,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간접참여 기업도 36개에 해당된다. 일부 기업은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시하며, 정규직 채용과 안정적인 복리후생을 제공

하는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

행사장에서는 기업별 채용 정보와 근무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구직자들이 기업인사담당자와 소통하며 궁금한 점을 묻고, 채용 절차와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두피·탈모 진단 등 구직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2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남원시가 2025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에 대비해, 22일부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어린이 2회 접종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생애 처음인 어린이로,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을 하

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미취학아동은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접종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혼자 방문할 경우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한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지참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N치즈축제 대비 음식점 식품 위생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이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음식점 2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관리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3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특히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여부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기준 준수 △식중독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지도·점검 결과 결격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나서

순창소방서는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이나 복도를 통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외부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체중에 따라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높은 층에서도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제작된 비상용 피난기구다.

특히 완강기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10층 이하 층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내부 통로를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탈출 수단이다.

사용 순서는 △완강기 속도조절기와 벨트 꺼내기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로 고정하기 △벨트를 겨드랑이에 걸고 조이기 △릴(줄)을 지상으로 던지고 지지대를 향해 앞으로 이동하기 △다리부터 창 바깥으로 나가기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하강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